

떴떴한 한국인 (6)

1. 주인 정신

—韓國精神文化研究院提供—

本稿는 선진국가를 指向하는 現代社會속에서 우리가 살고있는 社會의 實狀을 投影하여 文化國民으로서 지녀야할 姿勢를 摸索하고자 揭載하는 바이다.

앞으로 本欄을 통해 主人精神·名譽心·道德心과 더불어 國民 主体意識을 考察하고 協同精神·使命感·準法精神을 살피봄으로써 協同社會의 意味를 되새겨 보며, 愛國心과 反共精神 그리고 統一意志를 照明해 봄으로써 先進祖國의 文化國民의 姿勢를 다짐해 보고 자 한다.編輯者註

사회적 삶과 주인된 삶

이상적인 삶의 세계를 논하는 것이 자신들의 고유한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학자, 문학가, 예술가,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풍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나, 그와는 정반대로 매일 매일의 끼니를 걱정해야할 못 서민들까지도 보람있는 삶에 대한 집착을 떨어버릴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좀더 풍요한 생활, 좀더 유쾌하고 안락한 생활, 좀더 신나고 멋있는 생활,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해 마지 않는 보람 있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그런 삶은 왜 뜻 있는 삶이 되는 것인가? 물론, 보람 있는 삶이 뜻하는 내용이나 의미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보람 있는 삶에 대한 열망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끊임 없이 이어져 왔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가 어떤 삶을 보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이유를 고매한 이상의 세계에서만이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인가?

옛 희랍의 괴팍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거지같이 걸식 방랑하는 생활을 하면서 원시적이고 반 문명적인 이상을 추구하던 끝에 급기야는 스스로 통 속에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주위와의 접촉을 일체 거부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 디오게네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건 그 나름대로의 보람 있는 삶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인즉, 그 얼마나 알기 어려운 야릇한 이율배반인가!

여기서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굳이 구구한 이론을 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못 사람들은 요원한 이상의 세계가 아닌, 바로 이 시간 현재 각자가 체험하고 있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삶의 구체적인 의미를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서슴 없이 답할 것인가?

순수한 개인으로는 자기가 이끌어가고 있는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매사를 뜻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곧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전쟁이나 폭력 등 일체의 억압으로부터 오는 공포에서 벗어나 좀더 안정된 삶을 누렸으면 하는 소망,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안에 좀더 질서가 유지되고 보다 화목한 기풍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어떻게 하면 보다 정의가 구현되고 복지가 향상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바램, 이 모든 것에 못지 않게, 우리는 또한 남북에 헤어져 살고 있는 6천만 동족들이 통일을 이루어 화목하고 풍요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한결같이 열망하고 있다. 이러한 열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생활이 곧 국가와 민족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보람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이 모든 것은, 1980년 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 당연하면서도 절실한 소망들이기에 보람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중 하나라도 빼 놓을 수 없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부와 국민의 빈틈 없는 협력이 요청된다. 그러한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 존재의 기본양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것은 나와 남과의 관계, 나와 국가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삶에 주어진 본질적 가치에 대한 통찰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란 오직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이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어떠한 인간도 자기 혼자 만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는 결코 어린이들만을 위해 꾸며낸 동화가 아니다. 그것은 어른들도 자칫 잊어버리고 지내기 쉬운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 존재의 기본 양식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던 끝에 어느 무인도에 기착하여, 수 십 년 동안 홀로 혼자만의 생활을 꾸려 나갔다고 하는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담, 그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가 태어난 사회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절해 고도에서 인간 사회와의 관계가 단절된 채, 자기 혼자만의 생활을 계속해 나간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사실이었을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로빈슨 크루소가 그 무인도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도 실은 그가 태어난 영국 사회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하루도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는 그가 태어난 영국 사회에서 배운 지식과 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매일 매일의 식량을 얻고, 필요한 생활도구를 만들어 썼을 뿐 아니라, 고독하고 고난에 찬 생활 속에서도 영국적인 교양과 유머 정신으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

사람이 그가 태어난 사회를 떠나서는 결코 생존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저 유명한 ‘늑대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다.

